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성례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중 '성례' 장, 399~409쪽 무렵 (다음 장이 411쪽에서 시작)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자기 전통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개혁주의는 설교를 성례보다 높이 두는 실수를 하곤 했으니, 성례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로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례를 세 측면으로 정리합니다. 성례는 가르치는 '표'(규범적)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행동과 인침'(상황적)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재의 자리'(실존적)입니다. 이 틀로 세례와 성찬을 차례로 살핍니다. 그 과정에서 로마 교회, 루터교, 쯔빙글리의 견해와 칼빈의 견해를 비교하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과의 식탁' 주제를 펼쳐 보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례는 말씀 없이 홀로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감각 전체에 닿게 하는, 언어 계시의 한 형태입니다.

📜 절별 정리

📜 1. 성례는 하나님 말씀의 어느 자리에 있는가

프레임은 앞장(설교)에서 개혁주의가 설교를 성례보다 우위에 두는 실수를 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성례를 '하나님 말씀의 전달'이라는 관점으로 간략히 다룹니다. 그는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매체를 사건, 말, 사람 셋으로 나눈 바 있습니다. 성례는 이 틀에 딱 맞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말이 아니라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학이 성례에서 주목해 온 것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묶은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덧붙입니다. 교회가 이 개념을 만들지 않았다면 신학계가 더 평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까지 던집니다. 그래도 둘을 함께 보면 중요한 닮은 점이 드러난다고 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1항의 정의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1. 개혁주의는 설교를 앞세우다 성례를 소홀히 했다
2. 성례는 사건이지만 '의미를 실어 나르는' 사건이다
3. 종교개혁자들은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 불렀다
4. 개혁주의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둘뿐이다
5. 성경 자체에는 '성례'라는 묶음 이름이 없다

> **(직접 인용한 성경 구절 없음)**
> 정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1항에서 가져옴

📜 2. 성례의 세 얼굴: 표, 하나님의 행동, 임재

프레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의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2장)과 거기서 나온 세 관점에 맞는 세 측면을 찾아냅니다. 첫째, 규범적으로 성례는 '표'입니다. 하나님이 권위 있게 복음을 가르치시는 계시입니다. 다만 말이 아니라 모습과 동작으로 가르칩니다. 세례에서 우리는 죄 씻음을 듣기만 하지 않고 보고 느낍니다. 성찬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말씀과 성례가 함께할 때 충만해집니다. 둘째, 상황적으로 성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실제로 일하시는 '행동'입니다. 성례는 '인침'입니다. 출생증명서에 찍힌 정부 직인처럼 언약의 약속을 공식적으로 확증하고 보증합니다. 아브라함의 할례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의 인침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성례는 또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 백성 안에 세웁니다. 셋째, 실존적으로 성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신다면 거기 계신 것이고,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바울은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교제(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로마 교회는 성례를 행하는 것만으로 은혜가 자동으로 생긴다고 봅니다. 프레임은

다루시며 그리스도를 임재하게 하실 때 일어나고, 성례의 효력은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1. 표(규범): 복음을 보고 만지게 가르친다
2. 행동·인침(상황): 하나님이 약속을 공식 보증하신다
3. 임재(실존): 성례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리다
4. 성례는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5. 자동 효력(사효론)은 거부, 효력은 믿음으로

> **로마서 4:11**
> 할례가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었듯, 성례도 은혜언약의 인증서임을 보여 줌
>
>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고린도전서 10:16**
>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교제'(코이노니아)라는 근거 — 원문의 '고전 10:6'은 10:16의 오식
>
>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례의 효력은 단지 믿음을 통해서 발생한다.”

📜 3. 세례 ① — 교회의 문, 그리고 세 가지 그림

프레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1항을 인용하며 세례를 다룹니다. 먼저 세례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견교회)에 들어가는 입회 의식입니다. 시민이 되려면 [illegible]

표로서 세례는 세 가지를 그려 보입니다. 첫째는 죄 씻음입니다. 구약의 정결 예식처럼, 씻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모두 실제로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용서의 복음을 보여 줍니다. 프레임은 세례가 곧 새로 태어남이라거나 용서가 세례를 통해 온다는 주장은 성경이 하지 않는 말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둘째는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처럼, 성인은 세례 때 죄를 고백하고 돌이킵니다. 유아세례를 하는 교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고백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에게 속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합하여 세례를 받고, 새 생명 가운데 걷습니다. 성령 세례도 여기에 속합니다. 프레임은 구원의 모든 복이 이 연합에 기초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르심, 중생, 믿음과 회개, 칭의, 양자됨, 성화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옵니다.

1. 세례는 가견교회에 들어가는 입회 의식이다
2. 표 ①: 죄 씻음 — 용서의 복음을 보여 준다
3. 표 ②: 회개 — 죄를 고백하고 돌이킨다
4. 표 ③: 그리스도와 연합 — 그분께 속한다
5. 구원의 모든 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온다

> **레위기 8:5-6**
> 제사장 위임 때의 씻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정결의 예
>
> 5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 6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 **레위기 14:8-9**
> 정결 예식의 씻음 — 세례가 상징하는 '정화'의 구약 배경
>
> 8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9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3]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
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 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4]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5]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6]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

마태복음 3:6

요한의 세례 때 사람들이 죄를 자복함 — 세례는 회개를 나타냄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마태복음 3:11

'회개를 위한 세례'와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를 함께 보여 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복음 28:19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받는 세례 — 소속을 뜻함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전서 1:13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느냐는 질문 — 이름은 소속을 뜻함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2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음 — 이름·소속의 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로마서 6:3-6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합하는 세례, 새 생명의 근거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2:13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는 세례 — 연합과 성령 세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27-28

세례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가 됨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골로새서 2:11-12

[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 4. 세례 ② — 인침: 단순한 상징도, 자동 중생도 아니다

세례는 표일 뿐 아니라 우리가 언약에 속했다는 하나님의 확증, 곧 인침입니다. 세례는 이름을 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에게 자기 이름을 두신 것처럼, 세례는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합니다. 이 인침에 근거해 우리는 가견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프레임은 세례가 영원한 구원을 주지는 않는다고 거듭 말합니다. 16장(확신)에서 다루었듯, 세례받은 사람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복이 아니라 언약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도 세례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교제에서 오는 모든 복을 누릴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양쪽 모두에 선을 긋습니다. 세례를 단순한 상징으로만 보는 쯔빙글리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례가 곧 새로 태어남이라는 로마 교회의 생각이나 세례 중생설에도 반대합니다.

1. 세례는 언약 소속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인침이다
2. 세례는 하나님 이름으로 주시는 축복이다
3. 세례가 영원한 구원을 자동으로 주지는 않는다
4. 세례받고 배반하면 언약의 저주 아래 놓인다
5. 쯔빙글리(단순 상징)와 세례 중생설 모두 거부

마태복음 28:19

세례가 '이름을 주는' 의식임을 다시 강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 [24]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 5. 성찬 ① — 반복되는 교제의 식탁과 임재 논쟁

세례가 한 번 받는 입회의 성례라면, 성찬은 거듭 받는 '계속되는 교제'의 성례입니다. 프레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1항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셨고, 세상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성찬에는 세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를 보며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현재 그분께 영양을 공급받으며, 미래를 보며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며, 그리고 한 몸 된 지체들과 교제하며 지금 자라 갑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김에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어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어떻게 계시느냐는 논쟁을 정리합니다.

- **로마 교회의 화체설**: 사제가 축성하면 빵과 포도주가 겉모습은 그대로인 채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고 봅니다. 프레임은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실제 몸은 식탁 위가 아니라 그 뒤에 계셨다고 답합니다. 교수가 지도를 가리키며 “이것이 프랑스다”라고 말하듯, 빵은 몸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오류는 성찬을 계속 반복되는 희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최종적이고 완전해서 반복이나 보충이 필요 없습니다.
- **루터교**: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빵 '안에, 함께, 아래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의 '계속되는 희생' 개념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프레임은 육체적 임재에 대한 강조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성경의 강조를 흐린다고 봅니다.
- **쯔빙글리**: 성찬은 단지 표요 기념입니다.
- **칼빈과 주류 개혁파**: 성찬은 기념을 넘어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리스도는

프레임은 칼빈의 견해가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의미를 가장 많이 담으면서도, 성경에 없는 미신은 피하게 해 준다고 판단합니다. 동시에 이 놀라운 성례가 교회 안에서 복보다 싸움의 원인이 되어 온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1. 세례는 한 번, 성찬은 반복되는 교제의 성례
2. 성찬의 세 시간: 기억·영양·기대
3. 화체설: “내 몸”은 '나타냄'(지도 비유)
4. 화체설의 더 큰 오류는 '계속되는 희생'
5. 칼빈: 영적 임재, 믿음으로 참여 — 저자 지지

> **고린도전서 11:26**
> 주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함 — 과거와 미래를 함께 봄
>
>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 **요한계시록 19:9**
> 어린양의 혼인 잔치 — 성찬이 바라보는 미래
>
>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 **고린도전서 11:18-22**
> 한 몸 된 지체들의 교제(와 그 실패) — 성찬의 공동체성
>
> 18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20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16]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18]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요한복음 6:53-58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 — 믿음으로 받는 영적 참여(원문 '요 6:63-38'은 6:53-58의 오식)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마태복음 26:26

"이것은 내 몸이니라" — 화체설 반박의 핵심 본문(나타냄으로 읽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 6. 성찬 ② —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과의 식탁'

프레임의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고, 그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인도합니다. 처음에는 성례가 자기 전공이 아니어서 매달 새 묵상을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할수록 성찬의 배경과 상징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는 언약의 복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다툰 두 사람이 진심으로 화해하면 친구가 될 뿐 아니라 함께

화해는 너무나 진실하고 완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프레임은 이 흐름을 성경 전체에서 짚어 냅니다. 홍수 뒤 노아에게 주신 음식, 출애굽의 유월절, 시내산에서 장로들과 함께하신 식사, 광야의 만나가 있습니다. 성막의 진설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나타냅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가 죄 씻음에 초점이 있다면, 화목제는 속죄 뒤의 화해를 기념하며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먹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1세기 유대인들은 성찬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시편의 차려 주신 상, 지혜의 초대, 오병이어, 부활 후의 식사는 모두 마지막 날 메시아의 잔치, 곧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미리 보여 줍니다.

1. 진심 어린 화해의 끝은 함께 먹는 식탁이다
2. 타락은 식탁을 깨뜨렸고, 그리스도가 다시 차리셨다
3. 유월절·시내산·만나·진설병·화목제가 배경
4. 성찬은 새 언약이며, 참여는 언약의 갱신이다
5. 모든 식탁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가리킨다

> **창세기 31:52-54**
>
> 야곱과 라반이 언약 후 함께 먹음 — 화해의 식사
>
> 52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53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54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 **사무엘하 9:7-13**
>
> 다윗이 므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앉힘 — 은혜의 식탁
>
> 7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9]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10]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11]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2]므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

사무엘하 19:28

므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된 은혜를 고백함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열왕기상 2:7

바르실래의 아들들을 왕의 식탁에 앉게 하라는 유언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래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창세기 1:29

타락 전 하나님이 주신 음식 — 깨지기 전의 식탁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9:3

홍수 후 노아에게 고기까지 음식으로 주심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 구원과 언약을 기념하는 식사

[1]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 이 달 열나흗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

출애굽기 24:9-11

시내산 언약 때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심

[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10]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11]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16:1-35

광야의 만나 — 하나님이 백성을 먹이심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십오일이라 [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4]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

시편 78:19-20

광야에서 상을 차리실 수 있느냐는 불신의 질문(만나 배경)

19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20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출애굽기 25:30

진설병을 항상 상 위에 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37:16

상 위의 그릇과 붓는 병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레위기 24:5-9

진설병 규정 —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24:7), 영원한 언약(24:8)

5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열두 개를 굽되 각 덩이를 십분의 이 에바로 하여 6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7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8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9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민수기 4:7

진설병 상과 그 기구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레위기 7:11-18

화목제 — 예배자가 그 고기를 먹음

11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2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13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14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15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16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

레위기 19:5-8

화목제를 먹는 규정

5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6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7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8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신명기 27:7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즐거워함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누가복음 22:20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같은 새 언약 선언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시편 23:5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심 — 계속되는 공급과 교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잠언 9:2

지혜가 상을 차리고 초대함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마태복음 14:13-21

오천 명을 먹이심

13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15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18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

마태복음 15:38

사천 명을 먹이심(기사 전체는 15:32-39)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누가복음 24:30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에서 떡을 떼심

요한복음 21:9-14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 주심

9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쉰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사도행전 10:41

부활 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증인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누가복음 13:29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누가복음 14:15-24

큰 잔치 비유

15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누가복음 22:30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심

>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요한계시록 19:9

어린양의 혼인 잔치 — 구속의 완성

>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고린도전서 11:26

먹고 마시며 재림을 기다림

>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 7. 성찬 ③ — 식탁에서 생각할 세 시간

그래서 프레임은 성찬에 참여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차례로 묵상하라고 권합니다. 과거를 볼 때는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에 감사하며 그분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들고 감사(축사)하셨기 때문에, 성찬을 '감사'라는 뜻의 '유카리스트'라고도 부릅니다. 현재를 볼 때는, 영의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께만서 얻을 수 있음을 압니다. 먹고 마시며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그분과의 깊은 연합을 느낍니다. 프레임은 칼빈을 다시 소개합니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몸으로는 하늘에 계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미래를 볼 때는 다가올 더 큰 잔치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작은 빵 조각과 작은 잔뿐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교제는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은 맛보기이기 때문입니다.

2. 현재: 영의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
3. 칼빈: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 그분을 만남
4. 미래: 작은 빵과 잔은 큰 잔치의 맛보기

마태복음 26:27

잔을 들고 감사하심 — '감사'(유카리스트)라는 이름의 근거

>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누가복음 22:17

잔을 받아 감사하심

>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누가복음 22:19

떡을 들어 감사하심

>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24

축사하시고 떡을 떼심

>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요한복음 6:35-59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 영의 양식은 그분께만 있음

>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

고린도전서 10:16

몸과 피에 참여함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1:26

오실 때까지 — 미래의 큰 잔치를 기다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 8. 성례와 하나님 말씀의 신학

마지막으로 프레임은 이 모든 것을 말씀론과 연결합니다. 세례와 성찬이라는 단순한 두 의식은 그리스도 안의 구원을 놀랍도록 다양하게 그려 냅니다. 성례는 사건 계시, 말 계시, 사람 계시를 서로 이어 줍니다. 말 계시로서 성례는 성경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일 뿐 아니라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말씀이어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성경 내용에 참여합니다. 그렇다고 성례가 말씀과 떨어져 혼자 복음을 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어 계시 없이 성례만 있다면 그 의미는 불투명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례를 해석해 주어야 성례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반대로 말씀만 있고 성례가 없다면, 말씀이 주는 영향력의 많은 부분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명제와 명령뿐 아니라, 말씀에 맞는 그림과 느낌으로도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성례는 언어 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머리와 가슴에 닿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례는 사본, 번역, 가르침, 설교와 마찬가지로 언어 계시의 한 형태입니다. 성경 저자가 처음 쓴 원문, 곧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끝으로 프레임은 말씀을 제대로 받아 내 것으로 삼는 일은 학문적 작업만이 아니라고

1. 성례는 사건·말·사람 계시를 하나로 잇는다
2. 성례는 오감으로 받는 성경의 내용이다
3. 말씀 없는 성례는 뜻이 불투명하다
4. 성례 없는 말씀은 영향력의 많은 부분을 잃는다
5. 성례도 사본·번역·설교처럼 원문을 전한다

> **(직접 인용한 성경 구절 없음)**
> 앞 절들의 논의를 말씀론 전체(12장 세 매체, 4부의 사본·번역·설교 논의)와 연결

"성경 말씀은 성례에 대한 필요한 해석을 제공한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성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은혜언약을 보여 주고 확증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세례와 성찬 둘뿐입니다.

표와 인침
'표'는 복음을 그림처럼 보여 주는 것이고, '인침'은 도장을 찍듯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가시적 말씀)
종교개혁자들이 성례를 부른 이름입니다. 귀로 듣는 말씀을 눈과 손과 입으로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은혜언약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맺으신 약속의

가견교회(보이는 교회)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효론(라틴어 ex opere operato, '행해진 일 자체로')
성례를 행하면 그 행위 자체로 은혜가 생긴다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화체설
축성 후 빵과 포도주의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로마 교회의 견해입니다.

루터교의 임재론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빵 '안에, 함께, 아래에' 있다는 견해입니다. 흔히 '공재설'이라 불리지만 이 장에서 저자가 쓴 용어는 아닙니다.

은혜의 수단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쓰시는 통로입니다. 이 장에서는 설교, 가르침, 세례, 성찬을 가리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참여'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바울이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때 쓴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뜻에서 나온 성찬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들고 감사하신 데서 왔습니다.

규범적·상황적·실존적 관점
프레임이 모든 주제를 세 각도로 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규범), 다스리심(상황), 함께하심(실존)에 대응합니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 이 장의 결론

- 성례는 의미를 실어 나르는 사건, 곧 '보이는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정당한 통로입니다.
- 성례는 표(가르침), 인침(하나님의 실제 행동), 임재(그리스도와의 교제)이며, 그 효력은 자동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옵니다.
- 세례는 교회에 들어가는 입회와 언약의 인침이고, 성찬은 거듭 받는 교제의 식탁이자 언약의 갱신입니다.
- 성찬에서 그리스도는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칼빈의 견해가 성경에 가장 맞습니다.
- 말씀은 성례를 해석하고, 성례는 말씀에 생기를 줍니다. 둘은 함께 성령과의 인격적 관계를 이룹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1편 · 종이에서 마음으로 · 설교, 성례, 마음에 쓰기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